

홍콩 시위 격화 ... 건물 화재에 교통대란까지



홍콩 시위가 격화 양상이다. 시위대들은 도심 한 가운데서 불을 질렀고 지하철 운영을 방해하는 등 교통 대란까지 일어났다.

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홍콩 중문대학, 이공대학, 시립대학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은 교내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홍콩 시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무실 내 집기 등을 부셨다. 학생들은 학교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 진입을 막았다. 중문대에서는 학생들이 차량과 함께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시위대는 홍콩 곳곳에서 폐품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일부 경찰은 교내까지 진입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중문대 교정에 물대포를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파란 염료가 들어간 물을 뿌렸다.

시위로 대부분의 홍콩 내 대학은 수업을 중단했다. 국제 학교 등 홍콩 내 상당수 초중등 학교도 임시 휴교를 선언했다.

이날 저녁 도심 한 상점에서는 큰 불이 났다. 카오룽퉁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는 시위대가 방화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 방해 운동에 나서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에는 금융중심지인 센트럴 '랜드마크' 빌딩 앞에서 직장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손을 올리고 다섯 손가락을 편 채 홍콩 정부에 시위대의 5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사진)

터키 "미국 경고에도 러시아 미사일 구매할 것"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S-400 배치 강행 의지를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터키 관영 아나톨루 통신은 전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S-400를 버리고 미국의 패트리엇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out of question)." 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패트리엇을 살 수 있다. 하지만 S-400도 구매할 것이다." 라며 "터키는 미국의 패트리엇을 살 수 있으나, 패트리엇만 구매하고 러시아의 S-400을 폐기하라는 것은 주권 침해로 고려하겠다." 고 말했다.

앞서 13일 이뤄진 미국과 터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S-400과 같은 정교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지난 7월 터키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 터키정부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방공미사일 첫 인도 분이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유책 차원에서 "우리는 양국간 무역 규모가 빠른 시일 내에 연간 1,0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가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터키가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미 의회를 통과할 제재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생태계 보고' 브라질 열대늪지 산불 피해 확산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브라질 판타나우 지역에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지난달 판타나우에서 2천430건의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날 전했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10월(2천761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해 10월(120건)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산불 때문에 파괴된 숲은 1천730km²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시의 면적(1천521km²)보다 넓다. INPE는 올해 1~10월 산불로 타버린 숲이 1만8천138km²로 집계돼 2007년 1~10월의 1만8천699km²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판타나우의 상당 부분이 속한 중서부 마투 그로수 두 술 주 정부는 산불 때문에 식물뿐 아니라 악어 등 파충류와 어류가 죽은 채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도시에는 산불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산불 때문에 생긴 심한 연기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타나우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약 22만 km²이며, 80%가 브라질 중서부에 속하고 나머지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걸쳐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버금가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앞서 소방당국은 산불이 서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돼 대규모로 번진 점으로 미루어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